

## [일대일로 맺어진 우리 가족]

### “우리는 주안에서 한 가족”

2001 / 페이지 수: 3

#### 일대일 교재도 완성되지 않은 채

조성록 선교사(일본 선교사-지바현교회)가 처음 일대일제자양육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84년이었다. 아직 교회가 가건물로 있을 때 1백 명의 성도가 매일 성경공부로 모이기에 힘쓸 때이다. 몇 명 되지 않는 장로와 교역자가 중심이 되어 양육을 시작했다.

조성록 선교사는 “그때는 저도 잘 모른 채 시작했지요. 전도서를 공부한 어느 날 고 이영하 장로가 내게 와서 ‘전도서는 불교교리가 많다’길래 정신이 번쩍 들어 예습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니까요.”라고 그때를 회상한다.

“그때는 평신도가 하는 성경공부라는 것이 별로 없던 때였기 때문에 뭔가 가르치면 듣는 동반자들은 모두 ‘아!’하며 탄성을 지르기에 바빴어요”라며 동반자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들 이어서 일대일양육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일본선교사로 7년째 사역하고 있는 조성록 선교사는 일본에서도 일대일을 하고 있다. 조 선교사는 “일대일 양육은 평신도끼리 하는 성경공부이기 때문에 형제애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과 교제를 통해 교회에 애착이 생기고 봉사하게 한다”고 말했다. 조 선교사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위해서, 영적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누구든지 일대일 양육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대일양육을 1대 10으로...

금경연 장로는 87년부터 88년까지 조성록 장로에게서 양육을 받았다. 당시에는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자는 조성록 장로 한명에 10명가량의 동반자가 있었다. 그때 함께 양육을 받은 동반자들은 지금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개인적인 교제는 거의 없었지만 성경공부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던 금 장로는 나무의 줄기를 잡은 듯 신앙생활에 체계적인 질서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김제는 목사에게 양육자과정을 이수 받고 양육을 시작했다. 지금 교회 자료에는 24명을 양육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양육한 사람들 이름을 세어보니 45명이다. 양육을 많이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진 적도 있었다. 그때는 새 책을 사서 동반자와 똑같이 말씀을 새로 찾아 쓰고 공부하는 것으로 극복했다.

#### 새벽교제의 주인공 김성묵 장로부부

금 장로의 김성묵 장로와의 일대일은 특별했다. 김성묵 장로부부는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마다 만났다.

대치동 집으로 김성묵 장로 부부가 찾아오기 전, 조금 일찍 일어나 청소도 하고 김밥도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출근준비를 모두 마친 김장로 부부가 초인종을 누른다. 네 명의 새벽교제는 잊을 수가 없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교제는 없었다고 한다.

여의동순복음교회를 다니던 박기신 권사 역시 이미 양육을 하던 차에 교회를 옮기게 되어

김성묵 장로와 만났다. 공부할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며 모든 과정을 마쳤다. 박기신 권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보다 타 교회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대일을 한다. 지금은 51명이나 양육을 했다. 동반자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고백하기도 한다고. 박기신 권사는 “일대일을 본업, 돈 버는 일은 부업”이라고 고백한다.

### **맘 뽀뽀 흘리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박기신 권사가 조이선교회 주부 제자 반을 양육하다가 노국자 집사를 양육하게 되었다. 박기신 권사는 “노국자 집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라고 회상한다.

노국자 집사는 일대일 전도사 같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신나고 힘이 나고 열매도 맺어요”라며 일대일 양육을 하면 너무 좋다고 말한다. 양육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일주일에 4번 일대일 양육을 하기도 했다. 95년부터 양육을 시작해 39명을 양육했다.

노 집사의 양육방법은 조금 다르다. 양육을 모두 마친 후 동반자가 다른 동반자를 양육을 시작할 때까지 자신이 양육할 기간이라고 말한다.

노국자 집사의 양육열정은 김학모 장로에게 이어진다. 김학모 장로와 4명의 동반자는 더운 여름 옥탑 방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대일 양육을 받았다.

### **“배웠으니 섬겨야죠”**

김학모 장로는 노국자 집사를 “어찌나 간추려서 이해가 잘 되도록 가르치는지 동반자 5명이 모두 한 번도 질문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라고 말한다.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눈이 열려 노상 ‘감사’만 넘쳤다. 당시에도 장로였던 김 장로는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은 것이 처음이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감동이 매일 넘쳤다.

김학모 장로는 “일대일양육, 모세대학 등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몸으로 섬겨야죠”라고 말한다. 김 장로는 올해 예수향기회를 섬기고 있다.

어느새 김 장로도 양육자가 되었다. 지금까지 13명의 동반자를 양육했지만 사실 동반자였을 때 보다 더 많은 은혜가 넘친다. 나이가 많아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려면 읽고 또 새로 쓰면서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날마다 영적으로 소생하는 것을 경험한다.

올해 86세가 되는 노승택 성도를 양육한 김 장로는 “그분은 아들에게 전도를 받아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제게 양육을 받았지요. 그런데 어찌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지 제게 도전이 됩니다.”라고 말한다.

### **감도 가져오고, 호박도 가져오고**

최원호 장로는 양육자인 김학모 장로가 같은 동네에 살고, 나이도 같고, 처지도 비슷해서 너무도 좋았다. 만나면 군대이야기도 하고 보릿고개 이야기도 했다. 최원호 장로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고백한다. 김학모 장로를 일대일양육에서 만난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처럼.

친절한 김학모 장로는 마당에 있는 나무에서 땀다며 단감도 가져오고, 옥상에서 재배했다

고 호박도 따오고 고추도 가져왔다. 최원호 장로도 뒤질세라 집에 있는 귀하다 싶은 것은 모두 내놓았다. 지금은 서로 동지가 되었다.

최원호 장로도 한 성도를 양육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 동반자가 요즘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이다. 마치 자녀를 키우는 듯 노심초사다.

7대를 내려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인 양육을 받았다. 양육자는 동반자를 자녀같이, 동반자는 양육자를 부모같이 믿고 따르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의 참 모습을 본다.

**\* 출처 : 은누리신문**